

『변사 김도언』 토의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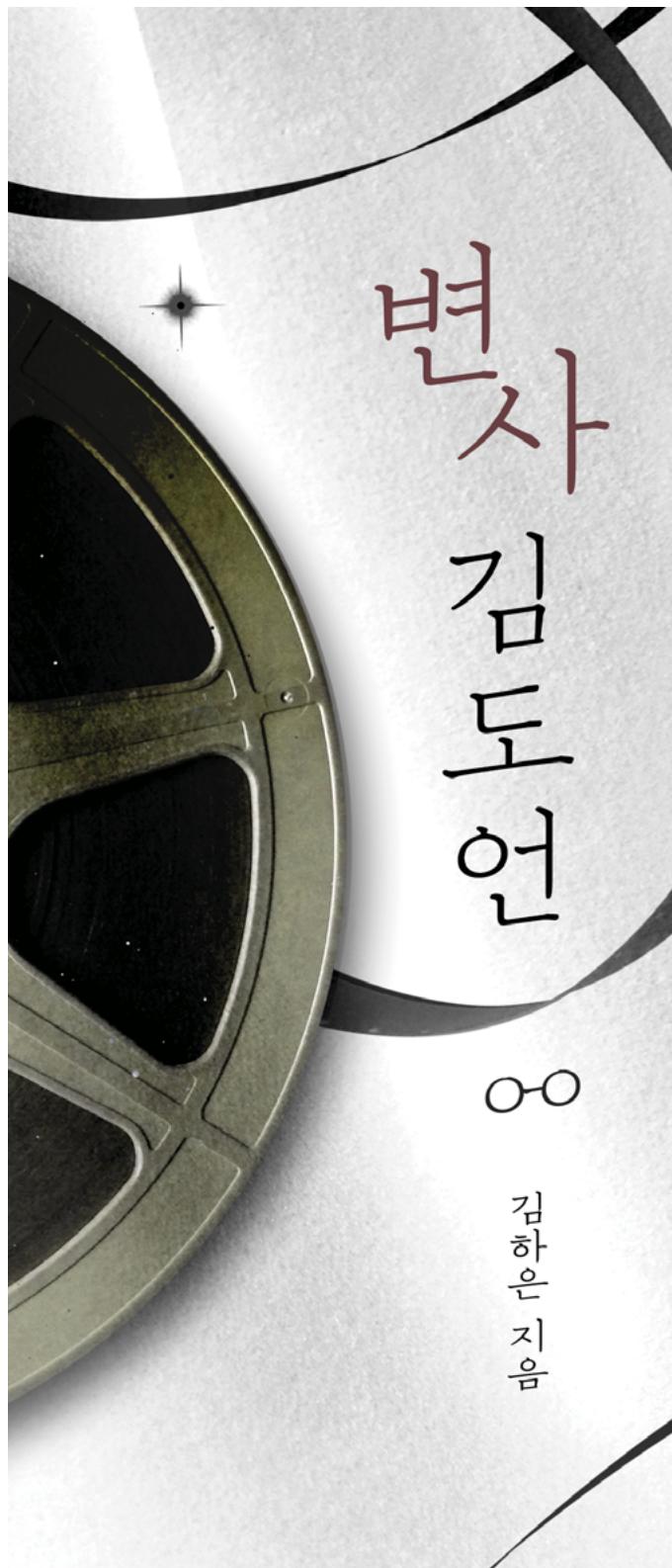
■ 변사 김도언



『변사 김도언』은 일제 강점기 역관의 딸로 태어나 한국 최초의 여성 변사가 된 김도언의 짧고 강렬한 생애를 그려냅니다. 이 작품은 당시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던 사회의 프레임을 비롯해 격변하는 시대의 틈에서 움튼 한국 영화와, 독립 운동 단체의 활동 등 한국 근대사의 여러 면모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충실한 사료를 바탕으로 구현된 인물들은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도 강단 있게 뜻을 펼쳐나가며, 특히 도언의 삶은 독립 운동의 여파로 몰락한 중산층 가정의 안타까운 모습과 함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자 했던 당대의 문화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 이렇게 읽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를 볼 수 있기까지 영화는 어떤 변화를 거쳤을까요? 또 일제 강점기의 여성들에겐 어떤 제약이 있었을까요? 초기 한국 영화의 흐름과 당시 여성으로 사는 삶, 그리고 독립 운동에 대한 의지에 주목해 도언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세요. 그럼 거기에 ‘숨은별’이 있을 거예요.



■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삶

1910년 8월 국권 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8·15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강제 점령하고 식민통치를 했던 시기를 일제 강점기라고 합니다.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서도, 사회에서도 일제 강점기는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김선대가 종로 경찰서로 찾아왔을 때 도언은 속치마를 찢어서 이마를 동여매고 있었다. 찢어진 이마에서 흐르던 피로 천이 붉게 물들었고 눈두덩이는 부풀었으며 팔목도 시큰거렸다. 도언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통증 때문에 표정이 일그러졌다. 김선대는 손에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곤봉과 총칼을 휘두른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따졌으나 경찰서장은 치안을 위해 서라며 콧방귀를 뀌었다.

단순 가담으로 분류되어 이를 만에 풀려난 도언은 앓아누웠다. 까무룩 정신을 잃었다가 차렸다가,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토하기를 반복했다.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버지…….”

“잠깐 일 보러 나가셨어.”

도언은 스르르 눈을 감았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행진했다. 총소리와 곤봉이 없는, 평화로운 행진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메우는 꿈을 꾸었다.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이럴 리가 없잖아. 동시에 이런 일이 진짜이길 바랐다. 활동사진을 보다 시비가 불어도 일본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조선인들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세상은 싫었다.

(중략)

두 사람이 챙긴 상언의 책은 모두 도언의 방 아궁이 앞에 놓였다. 김선대는 상언이 애지중지하던 책들이 모두 불쏘시개로 활활 타는 걸 지켜보며, 동경으로 떠나기 전날 상언이 하던 말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조선은 황제가 우선인 나라입니까, 아니면 백성이 우선인 나라입니까?”

그때 김선대는 땅하고 울리는 뒷골을 손으로 눌렀다. 김선대도 독립을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그나라는 황제가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언이 생각하는 조선은 달랐다. 백성이 스스로 다스린다니,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생각이었다. 엊친 데 덮친 격으로 도언까지 다쳤다. 상언이 경성에 와 있다면 조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럴 때 아이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게요.”

재로 변하는 책들만큼 두 사람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다.

본문 53~56쪽 중에서

일제 강점기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당시 사람들의 입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Tip)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연극, 소설 등에 대한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어보세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⑦ 퇴위한 이태왕이 승하했다. 이태왕이 독살당했고, 그 배후에 일본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도언이 다니는 여자 고등보통학교 학생들도 상복을 입었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력으로 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천야서당 김동혁 훈장이 양복을 입은 사내와 함께 김선대를 찾아왔다. 도언은 두 사람을 사랑방으로 안내했다.

“⑧ 오얏나무가 참 멋지군요.”

양복을 입은 사내가 중얼거렸다. 도언이 아버지가 아끼는 나무라고 말하려는데 사랑방 문이 열렸다. 김선대가 벼선발로 뛰어나왔다.

“어쩐 일이십니까, 이곳까지.”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언아, 사람들을 물려주련?”

김선대를 찾은 손님들은 여럿 있었지만, 근처에 사람을 물리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망을 보던 도언은 장꼽단이 차려온 다과상을 들었다.

“탄탄한 조직과 함께 일을 벌이는 게 좋겠습니다. 천도교나 야소교, 불교…….”

문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도언은 헛기침을 했다. 도란도란 나누던 말소리가 뚜 끊겼다.

본문 43~44쪽 중에서

2. ‘⑦ 퇴위한 이태왕이 승하했다.’는 문장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Tip) 이태왕이라 불린 인물은 누구일까요? 왜 이태왕이라 불렸을까요?

3. 김선대에게 ‘⑧ 오얏나무’란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보세요.

Tip) 김선대는 구한말 중산층이자, 대대로 역관이었던 집안의 가장입니다. 김상언과 김도언 오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들인 김상언은 독립 운동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김선대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하며 읽어보세요.

■ 초기 한국 영화의 흐름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나요? 멋진 히어로가 세계를 구하는 영화? 혹은 누군가와의 숨 막히는 추격전이 있는 영화? 그것도 아니면 환상적인 마법이 존재하는 판타지 영화일까요? 3D 안경을 끼고,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 영화를 보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화는 여러 변화를 거쳤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도언은 새로 개관한 일률 극장인 캐세이 극장으로 찾아갔다. 바닥에 깔린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였고 토키를 상영할 새 영사기가 놓였다. 도언이 지배인에게 물었다.

“토키를 보는 관객 범위를 어디까지 잡으실 예정입니까?”

“그게 무슨 소립니까?”

“아시다시피, 극장에 자주 드나드는 애활가들 중에 중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영어로 상영하는 토키가 대부분이니 그 말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극장에 통역관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통역관이라…….”

의자 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앉았던 지배인이 도언 쪽으로 몸을 당겼다. 도언은 토키 시대 상해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 흥분하던 사람들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흥미를 잃을 겁니다. 이럴 때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쏠릴 테죠. 지배인님은 그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캐세이가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다면 저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중략)

얼마 뒤 캐세이 극장에서 미국에서 만든 토키 영화를 상영했다. 입장하는 사람들은 한 장짜리 프로그램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는 중국어와 영어, 러시아어로 영화 줄거리와 주인공인 배우 소개가 실렸다. 그리고 특별석에는 쟁원을 비롯한 중국인들이 앉았다. 그들은 특별석에 앉으려고 요금을 더 냈다. 특별석에는 긴 줄이 달린 장치가 있고, 그 줄 끝은 귀에 바짝 대면 소리가 나는 장치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줄은 ‘이이평(譯意風)’이라고 불렸다. 이이평 반대편은 특별석에 딸린 해설원 자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특별석 해설원으로 선 도언이 영화를 보면서 토키에서 들리는 영어를 곧바로 상해어로 통역했다. 특별석 관객들은 배우가 영어로 직접 대사를 전달하는 발성 영화에 놀랐고, 대사를 곧바로 상해어로 번역하는 도언의 실력에 또 한 번 감탄했다.

“이이평 아가씨 덕분이오!”

외국어 발성 영화를 상해어로 통역하는 특별석은 곧 상해 시내 일률 극장에서 앞다투어 설치되었다. 이이평으로 영어를 해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으므로, 이들은 ‘이이평 아가씨’라고 불렸다. 그 중에서 도언은 실력이 뛰어난 해설원에 속했다. 변사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과 헬렌에게 배운 영어, 상해에서 만난 외국인들과 나눈 대화들까지 녹여서 입체적인 통역을 했기 때문이었다.

본문 173~175쪽 중에서

작품 속에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한 영화의 흐름을 짚어보세요.

Tip) 도언의 생애를 되짚어보며 떠올려보세요.

2. 도언에게 ‘영화’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Tip) (1)서당에 다니던 어린 시절, (2)상언이 실종된 이후, (3)중국에 건너와 생활하던 시절, (4)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이후 이렇게 네 가지 시기별로 생각해봅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빛이 강하면 별이 잘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내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지. 은성단은 스스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남들에게 반짝이는 별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 은성단은 스스로를 빛나게 하기보다 더 큰 별인 독립을 위해 움직여.”

프랑스 공원에서 헤어질 때 상언이 도언에게 했던 말이었다. 도언은 가져온 밥을 으깨어 운기가 남긴 편지를 봉했다. 그리고 길게 자른 종이에도 꼼꼼히 밥알을 으깨 붙인 다음 상자에 붙였다. 밥 한 공기를 거의 다 쓴 다음, 손가락에 붙은 밥알을 떼어 먹었다.

“이번에는 내가 지킬게요. 그러니 당신이 돌아와서 꼭 이 풀을 떼야 해요.”

일을 다 마친 도언은 천천히 뒷정리를 했다. 혼자서는 다시 이 비밀 공간을 밟지 않으리라는 굳은 각오로 문을 닫아걸었다.

“살아 돌아와요.”

도언은 닫힌 문 앞에서 중얼거렸다. 운기에게 아직 못한 말이 많았다.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을 표현할 시간보다 비밀을 지켜야 할 시간이 더 많았던 부부였다.

“사랑해요!”

도언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극장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무리했던 도언은 몸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진형에게 편지를 썼다. 남기고 갈 것이 극장밖에 없으며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혹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절대 극장을 팔지 말라고 당부했다.

‘너를 사랑한다. 몹시 사랑한다.’

도언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잠이 쏟아졌다. 도언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변사석에 섰다. 영사실에는 운기가 들어갔고 객석에 진형과 곱단이 앉았다. 뒷줄에 재윤과 김선대도 있었다. 도언은 부채를 꽉 펴고 활짝 웃었다.

“안녕하세요, 대한인 변사 김도언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필름은 ‘은성단 - 숨은별들을 찾아서’입니다.”

객석에서 큰 소리가 터졌다. 박수 같기도 하고 만세 소리 같기도 했다. 극장이 흔들거리고 변사석이 출렁였으며 영사막이 환해졌다. 영상에 찍힌 사람들이 뚜벅뚜벅 극장으로 걸어 나왔다. 각진 얼굴만 보였던 상언, 뺨통 머리만 보인 남자,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던 여자, 키가 업충한 남자, 그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다. 평범하고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도언은 자신이 지켜낸 그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쿵!

도언은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르르 엎어졌다. 숨은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새벽이었다.

본문 236~238쪽 중에서

3. 이 작품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 ‘변사 김도언’의 모습은 3인칭 시점에서 쓰여 있습니다. 도언의 시점에서 1인칭으로 바꾸어 써보세요.

3-1. 1인칭 시점으로 바꾸어 써보니 어떤 것이 달라졌나요? 1인칭 시점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여성으로서의 삶

과거에는 여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제약이 강요되었습니다. 여성의 활동 영역이 오늘날 정도로 확대될 수 있기까지는 용감한 여성들의 술한 도전과 노력이 필요했지요. 지금도 많은 여성이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아버지는 왜 저를 업신여기십니까?”

도언이 짙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각진 턱을 내밀었다.

“내가 너를 업신여겼단 말이냐?”

“네. 오라버니는 서당을 다니는데 저는 집에서 자수를 배우잖아요. 저도 오라버니처럼 경서를 잘 외울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서당을 다니지만 여자아이는 서당을 다닐 수 없단다.”

“불공평해요. 제가 여자아이로 태어나려고 원한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두 번째로 우러난 찻물이 빈 잔에 채워졌다. 김선대가 찻잔에 입을 댈 때 도언이 말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데, 왜 여자는 예전처럼 살아야 해요?”

차를 마시던 김선대가 캑캑 기침을 내뱉었다. 사례가 들린 김선대의 등을 강해인이 쓸어내렸다.

겨우 진정한 김선대가 도언과 눈을 마주쳤다.

“뭘 하고 싶으나?”

“아버지처럼 역관이 되고 싶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아직 조선에는 여자 역관이 없지.”

빈 찻잔을 물끄러미 응시하던 김선대가 상언에게 물었다.

“너도 역관이 되고 싶으나?”

상언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 생각하던 상언이 조용히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아버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야 하는지…….”

사랑방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냥 어린아이인 줄 알았더니…….”

김선대가 중얼거렸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강해인이 입을 열었다.

“신분과 나라가 사라지고 황제도 힘을 잃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다른 세상을 품어야겠죠.”

김선대는 양미간을 찌푸리고 한숨을 내쉰 다음 마른 찻잎을 찻주전자에 두 번 넣었다. 상언과 도언이 한 말을 그 찻잎에 담았다. 그러고는 물을 따르지 않았다.

본문 14~15쪽 중에서

-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서당에 다니며 공부를 할 수 없던 도언처럼,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제한되었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Tip) 72쪽에서 쟁루이쩐이 전족을 풀던 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1-1. 반대로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도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명 대본뿐만 아니라 윤형수의 연행도 보았다. 그러나 보는 것과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도언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윤형수가 도언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돌아섰다.

그때부터 영화를 상영할 때까지, 도언은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극장 안을 중얼거리며 서성이는 도언을 보며 신성훈이 시비를 걸었다.

“이제 첫 무대인가? 건투를 비네.”

도언은 끝을 올리며 비꼬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대신 실실 웃고 있는 성훈 앞에서 한쪽 발을 쿵, 강하게 굴렀다.

“그래, 맞아. 첫 연행이야. 당신이 첫 연행을 할 때 나는 손뼉을 쳤어. 그런데 당신은 왜 내 연행을 비꼬지? 나도 당신과 같은 변사야. 변사 시험 성적도 내가 더 높았고. 동료에 대한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어.”

신성훈이 피식 웃었다.

“난 여자를 동료로 둔 적 없어.”

도언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보게 될 거야.”

본문 104쪽 중에서

2. 첫 연행을 하기까지 도언이 했던 노력과, 이러한 도언의 행보가 개인적·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봅시다.

3.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다른 여성 인물들을 떠올려보고, 그들의 삶과 도언이 주고받은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써보세요.

강해인	
쩡루이쩐	
장곱단	

■ 독립 운동가로서의 삶

1945년 8월 15일, 당시 일왕 히로히토가 항복 선언문을 낭독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국권을 되찾습니다. 자그마치 35년 만의 경사였어요. 광복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사람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송운기, 네 남편이 여기 왔다.”

도언이 울컥하면서 대들려는 순간, 잉크 없는 펜으로 글을 쓴 아버지가 도언을 말렸다. 조심해 라, 들키면 안 된다, 네 마음을 숨겨야 해, 지금이 끝이 아니다, 버텨야 해, 도언아, 넌 할 수 있다, 믿는다. 도언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다. ⑦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랜 싸움에 버티기 위해 남겨둔 씨앗이었다. 김선대가 철필로 긋어대던 ‘Independence’는 도언과 상언을 거쳐 진형으로 이어졌다. ‘독립’, 3대가 이어온 꿈이 씨앗에서 열매로 맺을 때까지 지켜야 했다.

“백 번을 물어도, 모릅니다. 알아야 대답하죠.”

또박또박 말하는 도언에게 채찍이 날아들었다. 도언은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쓰다가 정신을 잃었다.

바지가 축축했다. 옷을 갈아입고 싶었지만 다른 옷이 없었다. 겨우 바닥에 몸을 댔는가 싶었는데 다시 의자에 묶였다. 이제 이철만의 목소리를 들으면 채찍, 물, 인두, 봉등이가 떠올랐다. 질문은 같을 것이고, 답도 마찬가지였다. 도언은 희미하게 꺼지는 정신을 불들기 위해 행복했던 순간으로 되돌아갔다. 슬레이트, 프랑스 공원, 벤치,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혼인, 회회식당, 합환주, 작은 방, 찻잔, 운기, 진형……. 늘 끝은 진형이었다. 도언은 필사적으로 진형을 생각했다. 진형에게 떳떳한 엄마로 남고 싶었다. 살아남은 엄마가 아니라 지키는 엄마가 되고 싶었다.

본문 226~227쪽 중에서

1. 도언은 아버지가 독립 운동에 이바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을 서운해했습니다. 밑줄 친 ‘⑦’의 의미를 현재 도언의 상황과 연관 지어 생각해봅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나도 형이 하는 일에 끼워줘.”

이 말을 하려고 상언을 찾아왔고 기다렸다. 국경을 넘고 열흘 동안 상해로 오는 내내 아버지와 상언과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컸다. 정신 나간 아버지, 집과 연락을 끊은 오라버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감시당하고 싶지 않았다. 설령 작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직접 나서고 싶었다.

“안 돼!”

“생각이나 고려할 여지도 없어? 단박에 거절할 정도로 날 못 믿겠어? 더 이상 날 빼놓지 마. 나도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어.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돼. 단순해도 좋아. 뭐든 할게. 그렇게라도 하게 해 줘.”

상언이 몸을 돌렸다. 도언이 상언의 손을 붙잡았다. 서당에 다닐 때 잡았던 포동포동했던 손은 간데 없고 마디가 굽고 굳은살이 박혀 있었다.

“제발…… 부탁이야.”

“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랐는데…….”

“좋아하는 일과 독립 운동을 같이 하면 되잖아.”

상언이 손을 천천히 뺏다.

⑦ “너와 내가 꿈꾸는 방식은 다르지만, 도달하는 결론은 같아. 우린 둘 다 독립을 원해. 그렇지 않니?”

도언이 피식 웃었다.

“나는 그 결론에 떳떳하게 닿고 싶어.”

본문 144~145쪽 중에서

2. 밑줄 친 ⑦의 의미를 생각하며 상언과 도언의 ‘꿈꾸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두 사람의 방식이 운기의 영화를 통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해 봅시다.

상언이 꿈꾸는 방식	도언이 꿈꾸는 방식
운기의 꿈이 도언과 상언을 연결하는 방법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상해로 들어올 때, 임정이 상해에서 탈출한 직후에 일본 경찰들이 조선인 집들을 유린할 때, 다시 상해를 탈출할 때 쟁순이 번번이 도언을 도왔다.

“어르신은 왜 제게 이런 도움을 주십니까? 단지 친구 딸이어서 그러신 겁니까?”

“선대가 내게 편지를 보냈는데, 상언이 군주가 없는 나라로 독립하길 꿈꾼다고 했어. 자신도 그 꿈을 믿어볼까 한댔지. 그런데 그 편지를 받자마자 이곳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들어섰어. 백성이 주인인 나라라니, 그건 아직 중국도 갖지 못한 나라거든. 그런 나라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지.”

도언은 쟁순을 꼭 끌어안았다.

“그런 나라로 독립하도록 무엇이라도 해보겠습니다.”

도언은 자신이 던진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본문 186쪽 중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의 시위대가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플래시몹’ 스타일의 새로운 시위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홍콩의 시위대가 지난 주말 홍콩 시내 전역에서 소규모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플래시몹 스타일의 시위 전략을 사용했다고 보도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홍콩의 시위대는 일요일인 13일 샤파, 추엔완, 몽콕, 쿤통 등 홍콩 시내 10여곳에서 플래시몹을 연상케 하는, ‘케릴라 시위’를 벌였다. 플래시몹은 불특정 다수인이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SNS) 등으로 연락을 취해 미리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행동을 한 뒤 곧바로 흩어지는, 일종의 ‘번개 모임’을 말한다. 시위대는 집에서 도보나 버스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머물다 미리 약속된 장소로 이동해 기습시위를 벌였다. (중략)

지난 6월 9일부터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안)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홍콩의 시위사태는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램 행정장관의 법안 철회 선언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얼굴을 가린 채 시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복면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격렬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0월 14일

3. 위 본문에서 쟁순과 도언의 대화를 읽고, 인용한 기사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해봅시다.

가로 열쇠

※ 크로스 퍼즐을 함께 풀어봐요.

①②						⑥										
		④				⑤										
					⑦							⑧⑨				
	③						⑪									
	⑩				⑭											
⑫			⑬					⑯				⑯				
								⑮⑯								

가로 열쇠

- ① 1910년 국권 피탈 때 일제가 상왕(上王)인 고종을 낚춰 이르던 말.
- ③ 경복궁의 중심이 되는 정전이며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건축물. 역대 국왕의 즉위식이나 대례 등이 거행되었다.
- ⑤ 세로④ 기관의 국내외 업무 연락을 위한 지하 비밀 행정 조직.
- ⑦ 일제 강점기 당시 서울 충무로에 문을 연 극장의 이름
- ⑨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국 사람을 이르던 말.
- ⑪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극영화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계몽 영화로서 조선 총독부 체신국에서 제작, 연극계 윤백남이 감독을 맡았다.
- ⑫ 고려, 조선 시대 통역 등 역학에 관한 일을 담당했던 관직
- ⑬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사설 극장의 하나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상설 영화관
- ⑮ 1910년 2월 18일에 개관한 조선 최초의 활동사진 상설 상영관
- ⑯ 중구 예장동·회현동1가에 걸쳐 있던 지역으로, 임진왜란 때 이 지역이 왜군의 주둔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왜장 혹은 왜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부르던 명칭.

세로 열쇠

- ②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인이자, 한국의 독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조지 루이스 쇼가 중국 안동현에 세운 무역 회사.
- ④ 김구, 이승만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임시로 조직한 정부. 광복 때까지 항일 민족 운동의 중심 기관이었다.
- ⑥ 일본이 3·1 운동 이후 실행한 식민지 통치 방식. 식민지를 무력과 강압만으로 지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이 겉으로는 일부 자치를 허용하는 것처럼 포장하되, 내부적으로는 더 가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했다.
- ⑧ 불온한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책. 이 책에서는 일제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 위엄을 해치고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규제 대상 도서를 뜻한다.
- ⑯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사이를 운항하던 연락선.
- ⑭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독립을 위해 비밀리에 조직된 결사단의 이름. 송운기가 은밀히 촬영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다.
- ⑯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세상을 뭉시 놀라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정답 및 해설

- ① **이태왕** | 1910년 국권 피탈 때 일제가 상왕(上王)인 고종을 낚춰 이르던 말.
- ③ **근정전** | 경복궁의 중심이 되는 정전이며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건축물. 역대 국왕의 즉위식이나 대례 등이 거행되었다.
- ⑤ **연통제** | 세로④ 기관의 국내외 업무 연락을 위한 지하 비밀 행정 조직.
- ⑦ **흔마치좌** | 일제 강점기 당시 서울 충무로에 문을 연 극장의 이름
- ⑨ **불령선인** |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국 사람을 이르던 말.
- ⑪ **월하의맹서** |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극영화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계몽 영화로서 조선 총독부 체신국에서 제작, 연극계 윤백남이 감독을 맡았다.
- ⑫ **역관** | 고려, 조선 시대 통역 등 역학에 관한 일을 담당했던 관직
- ⑯ **단성사** |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사설 극장의 하나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상설 영화관
- ⑯ **경성고등연예관** | 1910년 2월 18일에 개관한 조선 최초의 활동사진 상설 상영관
- ⑰ **왜성대** | 중구 예장동·화현동1가에 걸쳐 있던 지역으로, 임진왜란 때 이 지역이 왜군의 주둔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왜장 혹은 왜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부르던 명칭.

세로 열쇠

- ② **이릉양행** |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인이자, 한국의 독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조지 루이스 쇼가 중국 안동현에 세운 무역 회사.
- ④ **임시정부** | 김구, 이승만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임시로 조직한 정부. 광복 때까지 항일 민족 운동의 중심 기관이었다.
- ⑥ **문화통치** | 일본이 3·1 운동 이후 실행한 식민지 통치 방식. 식민지를 무력과 강압만으로 지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이 겉으로는 일부 자치를 허용하는 것처럼 포장하되, 내부적으로는 더 가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했다.
- ⑧ **불온서적** | 불온한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책. 이 책에서는 일제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 위엄을 해치고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규제 대상 도서를 뜻한다.
- ⑩ **부관연락선** |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사이를 운항하던 연락선.
- ⑭ **은성단** |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독립을 위해 비밀리에 조직된 결사단의 이름. 송운기가 은밀히 촬영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다.
- ⑯ **경천동지** |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